

이 책은 어떤 책인가

〈Brewing Change 로스 메세스 플라코스, 커피 산지의 굶주림〉은 한 편의 여행기이면서 감동적인 사회 비평문이고, 고무적인 사업 모델을 제공하는 책이기도 한다. 커피 업계를 혁신하고자 했던 어느 중간관리자의 조용하고 끈질긴 여정을 보여준다. 릭 페이지는 24년간 그린 마운틴 커피 로스터스에서 근무하며 커피 재배 농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실 새 없이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이다. 오랜 친구이자 작가인 빌 메어스와 이 책을 공동 집필하여 저자의 커피 업계에 대한 경험과 라틴아메리카와 동아프리카 커피 산지로의 여행기를 들려준다. 놀랍고도 가슴 찡한 이 이야기는 꺾일 줄 모르는 인간의 강인한 정신과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 눈에 띄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릭 페이지라는 한 인물의 여정을 기록함으로써 커피 업계에서 성공한 한 기업 내부의 이야기까지 흥미롭게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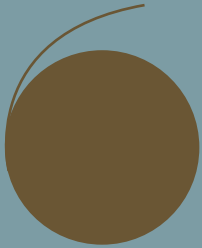
“커피 업계에는 지금까지 논쟁과 치열한 싸움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고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간 수많은 혁명가들이 있었다. 릭 페이지는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혁명가다. 그는 강자에게도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용기를 보여줬으며, 업계 동료들을 설득해 지속 가능한 변화로 가는 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았다. 커피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특유의 겸손함 때문에 절대로 맨 앞에 나서는 법이 없었다. 업계의 가장 큰 숨은 공로자인 그를 기념하는 데 내 목소리를 보탤 수 있어 기쁘다.”

– 마이클 셰리던 Michael Sheridan (가톨릭구제위원회 Catholic Relief Services)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릭 페이지는 커피 생산 지역의 빈곤 개선이라는, 남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해왔고, 그 덕분에 업계의 오래된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었다. 소수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문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독자들에게 이 책은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준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일단 문제 해결에 착수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성공의 열쇠임을 저자는 분명히 보여준다.”

– 릭 라인하트 Ric Rhinehart (미국 스페셜티 커피협회 SCAA 이사장)





“릭 페이지는 나설 줄을 모르는 영웅이다. 자신의 열정을 전파하고 겸손함으로 주위의 귀감이 되며,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가진 영웅. 릭의 여정은 한 업계를 변화시켰고, 업계 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렸다. 특히 전 세계 커피 재배 농가들에게 환경 파괴 없는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웠다. 이 책은 한 사람의 힘으로도 업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의미 있는 변화 역시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 윌리엄 푸트 William Foote (루트 캐피탈 Root Capital 설립자이자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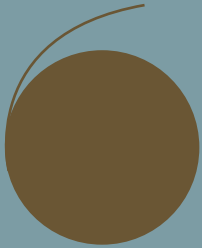
“우리가 매일 모닝커피를 즐길 수 있게 해준 농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릭 페이지가 그린 마운틴 커피 로스터스에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책으로 쓰는 데 동의한 것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책을 통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아 직전 수준의 빈곤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이유에서였다.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릭과 그린 마운틴 커피 로스터스가 있어 참 다행이다.”

– 마크 펜더그래스 Mark Pendergrast (<인커먼 그라운드스 Uncommon Grounds : The History of Coffee and How It Transformed Our World>(국내 미출간) 저자)

“아주 오래전 SCAA 회의에서 릭을 처음 만났을 때, 미소가 떠나지 않던 그의 얼굴이 여전히 눈에 선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냥 아는 사이에서 서로의 일을 지지해주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다. 커피가 삶의 전부인 농민들을 생각하는 릭의 마음은 절절하다. 그가 직장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직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직한 성품 외에도 커피 농민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농민들을 보면 언제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때문이었다. 생산 과정의 시작점인 이곳 농장에서 모든 것이 힘에 겨울 때면 정반대 편에 있는 릭을 떠올리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곤 한다. 만약 미국 커피 소비자들의 1%만이라도 릭의 메시지를 듣고 그 목표를 이해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전 세계 커피 산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할 것이다.”

– 마우시 쿨 Mausí Kuhl (니카라과 셀바 네그라 Selva Negra 농장주)





“릭 페이지는 혼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해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싸웠고, 다른 사람들이 회의에 빠져 있는 와중에도 그는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며, 감당하기 힘든 장애물 앞에서도 두려움을 몰랐다. 릭은 진중하고 비범한 사람이다.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린 마운틴 커피 로스터스의 변화를 이끌어낸 릭의 진실함과 끈기를 배우고, 이를 통해 우리 역시 양심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마일스 스몰 Miles Small (웹진 《커피토크 매거진 CoffeeTalk Magazine》, 《더 데일리 도즈 The Daily Dose》 소유주이자 편집장)

“우리 모두는 이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릭 페이지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세계에 비범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 빌 피시베인 Bill Fishbein (커피 키즈 Coffee Kids 창립자이자 더 커피 트러스트 The Coffee Trust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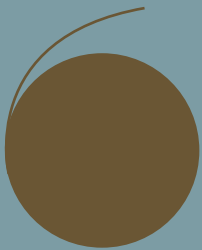
“릭의 이야기는 이런 방식의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릭은 기업의 맨 꼭대기에 앉아 있는 스타 CEO도, 시위자들로 광장을 가득 메우게 하는 사회운동가도 아니다. 쉽게 지나치게 되는 조용하고 한결같은 자세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능력 있는 중간관리자를 이 책에서 마주하게 된다. 릭은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경청을 통해 깨우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커피 업계 전체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한 내부자의 노력과 기업 활동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 사회정의의 하나로 묶어내고자 했던 그의 오랜 싸움에 대해 배우게 된다.”

– 크리스토퍼 베이컨 Christopher M. Bacon (산타클라라대학교 Santa Clara 환경정치정책학과 교수)

“우리 회사와 그린 마운틴 커피 로스터스의 인연은 2003년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릭을 알게 된 것은 2005년 뉴잉글랜드에서 맥도널드 사에 우리 커피를 소개하는 자리에서였다. 그는 참 온화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보기 드문 사람이다. 나는 릭을 통해 유기농 공정무역 커피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커피 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증진하는 데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였던 그의 여정을 들려주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 넬 뉴먼 Nell Newman (뉴먼스 오운 오가닉스 Newman's Own Organics 창립자)





릭 페이지는 어떤 사람인가

당시에는 미처 몰랐지만, 릭 페이지가 커피 재배지로 첫 번째 여행을 다녀온 후 우리 회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후 ‘커피 산지 여행’을 다녀온 수백 명의 직원들도 그랬지만, 커피 업계에 대한 릭의 생각과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다. 커피나무를 심는 일에서부터 가지치기, 수확, 가공 및 건조까지, 커피가 버몬트 워터버리에 있는 그린 마운틴 본사에 도달하기까지 이 기나긴 모든 노동집약적 과정에 투입되는 고된 노동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릭은 고품질 원두 공급의 주역인 농민들의 현실에 눈을 떴고, 이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릭의 여정은 1992년 코스타리카에서 시작되었다. 그 여정 속에서 릭이 항상 회사 동료들과 함께했다는 사실이 나는 지금도 기쁘기만 하다. 릭의 여정은 비즈니스의 영향력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회사의 믿음과 여러모로 닮아 있다. 그린 마운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철학은 언제나 ‘옳은 일은 실천한다’였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직원들 스스로 제시할 때가 많았다. 오히려 나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회사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믿는 전형적인 사업가였다. 그렇게만 한다면 언제나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회사를 운영해 나가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고객과 소비자들을 위해, 또한 공급을 담당하는 파트너를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사업 모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직원들이 열정을 보이는 일을 지원하려는 그린 마운틴의 의지는, 직원은 물론이고 소비자와 생산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큰 원동력이 되었다. 자신이 재배한 커피가 어떻게 판매되는지를 이해하고 우리 회사의 직원들과 교류하는 데 커피 농민들이 보여준 관심은 감동적이었다. 최고의 커피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열정은 대단했고,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에 농민들은 큰 힘을 얻었다. 농민들과 함께 커피 품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노력했고, 언제나 릭이 그 중심에 있었다.

현재 그린 마운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회사가 커가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역량도 그만큼 발전해온 것이다. 2011 회계연도에는 사회적 책임 및 친환경 사업에 사용되는 세전 수익의 5%가 1500만 달러를 돌파했다. 지원할 사업을 압축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업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풀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도 계속해서 강구해왔다.

이런 다양한 변화를 거치는 동안 릭은 커피 공급망의 시작점에 선 사람들, 다시 말해 전 세계 수많은 소규모 커피 농가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각국의 커피 재배지에 흠어져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단체들을 만나고, 커피 키즈 이사진으로 8년간 활동하면서 독일 본에 본부를 둔 세계공정무역협회 Fair Trade Labeling Organization International (FLO) 이사진에서도 단 한 자리만 주어진다든 로스팅 업체 대표자로 활동했다.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커피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온 장본인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미국 스페셜티 커피협회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America (SCAA)의 협회장 시절, 제인 구달 박사를 연례 정기회의에 기조연설자로 초청하여 커피와 환경 보호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릭은 갈수록 높아져가는 자신의 영향력을 신중하고 품위 있게,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한 업계지에서 ‘커피 업계의 성인’으로 묘사했듯이 릭은 어디에서나 사려 깊고 진실한 사람으로 평가 받는다.

정의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넓은 아량을 지닌 이 사람과 인연을 맺은 것이 자랑스럽고, 그가 경험해온 것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한 이 작업을 보는 게 한없이 기쁘다. 릭이 걸어온 길은 감동적인 여정이며, 동시에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워줄 여정이기도 하다.

— 밥 스틸러 Bob Stiller (그린 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창립자)



목차

- 1장 _ 의문을 품다 28
- 2장 _ 새로운 시작 48
- 3장 _ 케 파사?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78
- 4장 _ 그린 마운틴, 공정무역을 만나다 103
- 5장 _ 사무실 밖에서 121
- 6장 _ 새로운 직무, 새로운 대륙 153
- 7장 _ 로스 메세스 플라코스, 배고픈 시기 179
- 8장 _ 커피의 질보다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다 205
- 9장 _ 내 생애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내다 225

Bill Mares

빌 메어스는 버몬트 공영 라디오 방송국의 작가이자 해설자이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바 있으며 현재 버몬트 양봉가협회 대표이기도 하다. 역사와 철학, 뉴시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으며 달리고, 책 읽고, 합창대에서 노래하고 여행하는 것 또한 즐겨한다. 현재 아내 크리스 햇셀(Chris Hadsel)과 버몬트 주 벌링턴에 살고 있다. <Bees Besieged>, <Fishing With the Presidents>(국내 미발간) 등 여러 권의 책을 썼다.

프롤로그 하나, 빌 메어스

이 책은 릭의 책이다. 책을 쓰자고 제안한 것은 내 아이디어였고,

나는 릭을 20년 이상 알고 지냈다. 우리가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토요일 아침마다 마라톤 연습을 위해 몇 시간씩 함께 조깅을 하면서였다. 두세 시간 동안 시내와 시골길을 천천히 달리면서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 가족 문제와 정치 문제,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조깅할 때 아프고 쉰 곳에 대해 이야기했고 물론 커피 업계에 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커피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나의 호기심과 릭의 직업적 전문성이 만나 몇 시간이고 길가에 서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맥주 업계의 마이크로브루잉(microbrewing(소규모 맥주 제조-유통)) 혁명에 대한 책을 쓴 경험이 있는 나는 이와 유사한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성장 배경이 무척이나 궁금하였다. 맥주 애호가들

이 대형 맥주 기업들의 획일적이고 특징 없는 상품에 반기를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백만 명의 커피 애호가들 역시 시장을 지배하던 로부스타의 단조롭고 쓴맛에서 벗어나 보다 섬세하고 다양한 풍미를 자랑하는 아라비카 원두를 즐기게 된 것이다.

그린 마운틴의 대외 홍보 담당자라는 다소 소박한 직책에도 불구하고 릭은 스페셜티 커피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고군분투했다. 회원수 3000명이 넘는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America (SCAA))의 협회장을 포함하여 여러 업계 대표직을 역임했고, 다수의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진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관심사는 커피를 재배하는 사람들이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원봉사를 위해 커피 재배 지역을 방문했고, 덕분에 스페인어 실력을 키울 수도 있었다.

내가 가르치던 고등학교의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수업 시간에도 릭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그의 진중한 성품과 석유의 뒤를 이어 다섯 번째로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닌 커피에 얽힌 이야기를 좋아했다. 특히 업계와 수백만의 커피 농가를 도탄에 빠뜨린 최근 커피 시장의 불안정한 경기 위기 상황에 대해 설명할 때는 완전히 넋을 잃고 릭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릭의 열정은 나머지 말 그대로 행동하게 만들었다. 내가 양봉기술자인 관계로, 양봉업계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던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세 명의 양봉기술자들을 만나게 됐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릭의 주요 활동 무대인 라틴아메리카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던 중이었다. 듀이 카론(Dewey Caron) 교수는 살인벌에 관한 책과 스페인어로 된 기초 양봉기술 교본을 집필했고, 은퇴한 항공기 기술자인 톰 맥코맥(Tom Mc Cormack)은 벌을 주제로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투어를 진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플로리다에서 곤충학을 가르치던 말콤 샌포드(Malcom Sanford)는 온라인 상에서 양봉기술에 관한 스페인어 수업 자료를 작성하고 있었다. 나는 세 전문가의 활동 경력과 릭의 신념에 영감을 받아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양봉기술을 활용하여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나의 여정은 시작된 것이다. 커피와 꿀을 연결 지어 경제적

인 이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꿀을 비롯한 여타 양봉 제품으로 보조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커피 농민들을 도왔다. 릭의 인맥과 수차례에 걸친 중앙아메리카 출장을 통해 듀이 카론 교수와 나는 양봉기술에 관심 있는 커피 협동조합들을 위한 인터랙티브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한 양봉기술을 핵심 사업으로 삼는 비영리 단체 푸드 포 파머스 Food 4 Farmers 의 이사진으로도 활동하기 시작했다.

파나마로 출장을 갔을 때 릭은 세계 최상급의 커피를 생산하는 에스메랄다 Esmeralda 농장의 농장주 프리스 피터슨 Price Peterson 을 소개했다. 보케테 Boquete 북부에 위치한 피터슨의 아름다운 아시엔다 Hacienda(대농장을 의미한다-오키니)의 베란다에 앉아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 친구 릭은 이제 커피 업계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릭이 여태껏 인연을 맺어온 여러 단체들(커피 키즈, FLO, SCAA, 세이버더칠드런, 헤퍼 인터내셔널, 가톨릭구제위원회)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그저 아는 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자신의 분야에서 거물, 명사, 유력자, 실력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20년 전, 나는 일터를 민주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담은 <워킹 투게더 Working Together>라는 책을 공동 집필한 적이 있다. 그 중 한 챕터에서는 납작한 테이블과도 같은 조직 안에서 중간관리자들은 미미한 존재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릭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는 중간관리자이면서도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해내고 있었다. 그때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중간관리자면서도 중간에 끼이지 않은 릭에 관한 책을 쓰는 건 어떨까? 릭의 목소리를 담은 책이라면 더 좋지 않을까?

어느 가을 오후, 나는 조깅을 하면서 릭에게 물었다.

“이봐 릭, 책 한번 같이 써볼까?”

“좋지, 책 다 쓰면 에베레스트 등반도 하자고!”

“농담 아니야! 자네는 들려줄 이야기도 많잖아. 한 회사와 업계 전체를 변화시킨 사람이 아닌가. 커피 업계의 사회적 기업가인 셈이지. 중앙아메리카에서 커피나무를 심거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잖나. 내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책을 써봐서 알지. 기자로도 활동해봤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쓸만한 경험담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 우리 훌륭한 콤비가 될 수 있단니까.”

“누가 나에게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읽고 싶겠어?”

“바로 그거야. 단순히 자네에 관한 책을 쓰는 게 아니야. 자네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있잖아, 그린 마운틴과 업계 단체들, NGO들, 그리고 농민들 이야기를 써야지. 중간관리자이면서도 자신의 열정과 성격을 통해서 회사 안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쓰는 거지.”

나는 릭이 찬물을 끼얹기 전에 얼른 말을 이어갔다.

“그린 마운틴 창립자인 밥 스틸러가 장려했던 문화를 자네가 실현해낸 거지. 프리스 피터슨도 자네가 FLO에서 활동했던 일이나 SCAA 협회장, 커피 키즈 이사장 등으로 일했던 경력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 자네의 영향력이 회사 안에서 업계 전체와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된 거라고. 그 이야기를 책에서 하면 되는 거야.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은 CEO들이랑 경영 전문가들이 뻗한 자기 성공 스토리만 떠벌리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릭은 그 자리에서 좋다 싫다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몇 주 동안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동안 나는 책의 콘셉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릭의 동료들을 찾아갔다. 먼저 그린 마운틴의 첫 번째 영업 담당자였다가 나중에 그라운드스 포 헬스 Grounds for Health 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댄 콕스 Dan Cox 를 만났다. 그는 현재 커피 품질을 분석하는 업체 커피 엔터프라이시스 Coffee Enterprises 의 소유주이다. 댄은 기획 내용을 마음에 들어했고, 이렇게 말했다. “릭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여유로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꼴 줄도 아는 유머 감각을 가졌으면서도 누구에게나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죠. 글을 상당히 잘 쓰기 때문에 회사 대변인으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 이렇게 말할 줄도 알았어요. ‘네, 우리도 사람입니다. 실수를 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잡을 겁니다.’ 이럴 때마다 릭이 보여준 솔직함 때문에 더 이상 비난하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런 마운틴에 커피를 공급하는 농민들의 현실을 보면서 릭은 진심으로 공감했어요. 그런 마운틴에는 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완전히 핑이예요. 커피를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릭은 심사숙고한 뒤에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도울 수 있을지 이야기했어요. 커피 농민들을 위해 옳은 일이 결국은 회사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라는 칼 같은 신념을 가진 거죠. 진심으로 농민들을 대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를 이롭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절제되어 있는 그의 접근 방식은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회사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커피 업계의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공급망의 수많은 농민들을 만났으니 도와야만 했습니다.”

마케팅 부서의 로라 피터슨은 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남을 돕고자 하는 그의 열정은 회사 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지만 커피 재배지의 농민들이 겪는 빈곤을 직접 목격한 뒤부터는 뭔가 행동이 필요하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됐죠. 다행히 그런 마운틴의 사업이 성공적이었고 사내 분위기가 직원들 의견을 잘 수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릭은 농민들의 현실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원을 얻을 수 있었죠. 본인 스스로 커피 업계의 따뜻한 심장이 된 겁니다.”

릭 다음으로 홍보 담당자가 된 샌디 유센 Sandy Yusen은 이렇게 말했다. “너무나 조용

하고 겸손한 사람이면서도 업계 전체에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릭이 지닌 점잖은 태도와 엄격한 윤리적 원칙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릭과 함께 니카라과로 산지 여행을 다녀온 정보부서의 린 허버트 Lynn Herbert는 그 이후로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했다. “릭은 8일간의 여행을 통해 직원들에게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경험을 선물했어요.”

나는 이 모든 동료들의 칭찬으로 중무장을 한 뒤 어떻게든 책을 쓰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릭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몇 주간 조깅을 하면서 설득을 한 끝에 릭은 내 제안을 받아들일기로 했다.

릭과 나는 어떻게 책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우린 한두 시간짜리 인터뷰를 수도 없이 반복했다. 내가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녹음했고, 녹취를 풀어낸 다음 교정을 봐서 릭에게 넘기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글을 다듬어갔다. 집필 과정은 느렸지만 꾸준히 진행됐다. 당연히 여러 번의 시행착오도 겪었다. 막연하게 시간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기도 했고, 커피의 역사를 늘어놓아보기도 했다. 릭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모두 다 인터뷰하려다 멈추기도 했다. 가능한 한 그의 삶에 밀착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기로 한 후에야 집필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진행할 수 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커피를 마시고 선의의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책을 완성해갔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릭을 닦달한 적도 많았다. 그의 겸손함은 인간적으로는 무척 호감이 가는 성격이지만 책을 쓰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릭에게 진실만을 말하는 약을 먹여서 어두운 방에 앉혀놓고 심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몇 번이고 들었다. 함께 책을 쓰는 와중에도 나는 릭의 한결같은 믿음 덕분에 계속해서 커피 농민들을 위한 양봉기술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책을 쓰는 동안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정을 지키면서 책도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다. 이제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